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 비교

노채영* · 안병렬**

Key words: 라이프스타일(life styles), 친환경농산물(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만족도(degree of satisfaction)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determinant factors in selec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analyze the degree of consumer's satisfaction toward the products depending on life styles. 31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frequency, percentage,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 10.0.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irst, consumers show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age, residence, and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substanti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ypes are significant variables. Second, it was prove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s a determinant factor to consumers. Age, residence, families, substantial typ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ypes are significant variables. Accordingly, the degree of satisfaction is a positive factor, and consumers will regard environmentally friendly cultivation as a very important factor.

1. 서론	4.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분석
2. 관련변인 분석	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 요인
3.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분석	6. 결론

1. 서론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는 소

비생활 부문에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추세에 따라 건강과 안전한 농산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수요

* 목포가톨릭대학교 강의교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원.

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량 만두 파동’에 이어 최근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의 높은 관심주제로 부상되고 있다.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로 구분하여 인증표시¹⁾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등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유통 환경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접할 수 있지만,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

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박성연(1998)은 체계적 분석의 틀을 이용한 녹색소비자들의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녹색소비자의 특성은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측정항목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여가생활의 5개 차원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Plummer(1974)가 제시한 AIO의 차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환경 관련 활동(Activity), 환경에 대한 관심(Interest), 환경 관련 의견(Opinion), 환경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특히 소비생활 영역과 관련된 생활양식을 알뜰형, 충동형, 과시형, 환경보호형의 4차원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박성연(1998)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4차원의 라이프스타일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¹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은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1/2 이하로 하며,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전환기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서 전농산물의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의 작물은 2년으로 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나 사회경제학적 요인만으로는 다양한 소비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분석되는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필요하다(김정은, 정순희 200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유형 및 소비 행태 관련 선행 연구(강이주, 박명희 1990; 서정희 1991; 채서일 1992; 손상희 1993; 박진선 1995; 조형오 1996; 박성연 1996; 박성연 1998; 김민정, 박진선 1997; 황은애 1998; 현소은, 성예원 1998; 김훈, 권순일 1999; 채정숙 1999; 강이주, 오명렬, 2000; 정순희, 김현정, 2002; 조은미, 최남숙, 2003)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로는 최근 허무열 등(2005)에 의해 수행된 분석 이외에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소비자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17일부터 2004년 8월 7일까지로 하였다. 실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31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유효자료율은 88.6%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하위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WIN 10.0 PC Statistic Program을 이용하였다.

2. 관련 변인 분석

2.1. 인구통계학적 변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유무, 주거형태, 가족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1>. 연령은 39세 이하가 36.5%, 40세 이상이 63.5% 이하의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1.3%를 차지하였고, 100-200만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변 인	구 분	빈 도	%
연 령	39세 이하	113	36.5
	40세 이상	197	63.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5	11.3
	100-200만원 미만	141	45.5
	200만원 이상	134	43.2
학 령	고졸 이하	131	42.3
	2년제 대학 이하	67	21.6
	4년제 대학 이하	102	32.9
	대학원 이상	10	3.2
직업유무	유	177	57.1
	무	133	42.9
주거형태	단독주택	124	40.0
	연립주택	22	7.1
	아파트	164	52.9
가족수	4인 이하	204	65.8
	5인 이상	106	34.2
전 체		310	100.0

원 미만이 45.5%, 200만 원 이상이 43.2%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42.3%로 과반수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그다음으로 4년제 대학 이하가 32.9%, 2년제 대학 이하가 21.6%, 대학원 이상이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57.1%, 전업주부인 경우가 42.9%의 분포를 보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단독주택이 40.0%, 연립주택이 7.1%였다. 가족 수는 4인 이하가 65.8%, 5인 이상이 34.2%의 분포를 보였다.

2.2. 라이프스타일: 알뜰형, 충동형, 과시형 및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정말 그렇다=5’로 점수를 부여하여 수준을 측정하였다. 부정문인 경우에는 역으로 채점하여 처리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여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였다. 전체 라이프스타일의 Cronbach's α 는 0.743이었다.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신뢰도를 구한 결과를 보면, ‘알뜰형’의 Cronbach's α 는 0.713, ‘충동형’의 Cronbach's α 는 0.705, ‘과시형’의 Cronbach's α 는 0.783, ‘환경보호형’의 Cronbach's α 는 0.731이었다<표 2>.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 Cronbach's α 는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측정항목의 신뢰성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감안하면 척도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라이프스타일의 신뢰성 검정 (N=310)

구분	측정항목	문항수	알파값
라이프스타일	알뜰형	· 물건값이 쌀 때 기다려 구입 · 쇼핑 시 쇼핑목록 지참 · 거리가 멀어도 할인점 이용 · 매월 정기저축 · 계획구매 실천	5문항 0.713
	충동형	· 쇼핑 시 즉흥적 구입 · 아이쇼핑을 자주함 · 계획 없어도 마음에 들면 일단 구매	3문항 0.705
	과시형	· 물건 구입 시 타인의 이목 고려 · 남이 갖고 있는 것이 없으면 뒤지는 느낌 · 무리해서라도 한턱내야 할 때는 내야 함 · 비싸도 유명상표 구입	4문항 0.783
	환경보호형	· 이왕이면 리필제품 구입 · 비싸더라도 저공해 제품 구입 · 쇼핑 때 장바구니 지참 · 물건을 담을 때 비닐 대신 종이봉투 사용 · 재활용된 원료제품 구입	5문항 0.731
			0.743

표 3. 라이프스타일의 점수분포, 평균 및 표준편차 (N=310)

구분	점수분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알뜰형	하(8-13)	64(20.7)	3.20	2.99
	중(14-17)	152(49.0)		
	상(18-25)	94(30.3)		
충동형	하(3- 6)	72(23.2)	2.65	2.06
	중(7- 9)	173(55.8)		
	상(10-15)	65(21.0)		
과시형	하(4- 7)	75(24.2)	2.34	2.74
	중(8-12)	194(62.6)		
	상(13-17)	41(13.2)		
환경보호형	하(8-12)	74(23.9)	2.92	2.87
	중(13-17)	189(61.0)		
	상(18-23)	47(15.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의 점수분포를 알뜰형, 충동형, 과시형, 환경보호형의 4 차원에서 살펴보았다<표 3>. ‘알뜰형’은 하(8-13점)가 20.7%, 중(14-17점)이 49.0%, 상(18-25)이 30.3%이었고, 평균점수는 3.20, 표준편차는 2.99이었다. ‘충동형’은 하(3-6점)가 23.2%, 중(7-9점)이 55.8%, 상(10-15점)이 21.0%이었고, 평균점수는 2.65, 표준편차는 2.06이었다. ‘과시형’은 하(4-7점)는 24.2%, 중(8-12점)이 62.6%, 상(13-17점)이 13.2%로 이었고, 평균점수는 2.34, 표준편차는 2.74이었다. ‘환경보호형’은 하(8-12점)가 23.9%, 중(13-17점)이 61.0%, 상(18-23점)이 15.2%이었고, 평균점수는 2.92, 표준편차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검증 (N=310)

변인	구분	빈도 (%)	알뜰형			충동형			과시형			환경보호형		
			평균	표준 편차	Scheff e-test	평균	표준 편차	Scheff e-test	평균	표준 편차	Scheff e-test	평균	표준 편차	Scheff e-test
연령	30대 이하	113 (36.5)	15.19	2.95		8.16	2.01		9.43	2.75		14.22	2.80	
	40-50대 이상	197 (63.5)	16.04	3.02		7.82	2.09		9.33	2.74		14.81	3.49	
	t		-3.51			1.407			.320			-3.75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5 (11.3)	16.14	3.35	a	7.71	2.05		9.11	2.62		13.89	2.94	a
	100-200만원 미만	141 (45.5)	15.64	2.89	b	8.04	1.98		9.23	2.60		14.37	2.68	b
	200-300만원 이상	134 (43.2)	16.32	2.86	b	7.90	2.16		9.57	2.92		15.02	2.99	c
	F		2.453*			.380			.699			3.040*		
학력	고졸 이하	131 (42.3)	15.92	3.27		7.87	2.10	b	9.08	2.41	b	14.41	2.77	a
	2년제 대학 이하	67 (21.6)	15.96	2.99		7.75	2.10	b	8.90	3.05	a	15.39	2.76	b
	4년제 대학 이하	102 (32.9)	16.07	2.75		8.28	2.01	c	10.10	2.77	c	14.20	2.97	a
	대학원 이상	10 (3.2)	16.30	1.25		6.70	1.34	a	8.80	3.12	a	15.80	2.86	b
	F		.083			2.432*			3.776**			3.202*		
직업	유	177 (57.1)	16.14	3.11		7.94	2.04		9.51	2.63		14.56	2.91	
	무	133 (42.9)	15.79	2.81		7.95	2.10		9.17	2.87		14.64	2.81	
	t		1.026			-.040			1.086			-.225		
주거 형태	단독주택	124 (40.0)	16.02	3.09		8.04	2.12		9.45	2.74		14.42	2.94	
	연립주택	22 (7.1)	15.81	3.02		8.36	2.28		9.05	2.79		14.41	2.59	
	아파트	164 (52.9)	16.07	2.91		7.81	1.99		9.35	2.75		14.76	2.85	
	F		.875			.931			.214			.536		
가족 수	4인 이하	204 (65.8)	16.11	2.97		7.82	2.02		9.13	2.71		14.73	3.00	
	5인 이상	106 (34.2)	15.75	3.02		8.18	2.13		9.83	2.74		14.35	2.59	
	t		1.000			-1.463			-2.155**			1.097		

* p< .05 ** p< .01

는 2.87로 분석되었다.

3.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분석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표 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의 사후검증결과 각 집단을 a 집단, b 집단, c 집단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검증 (N=310)

변인	구분	빈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Scheffe-test
연령	30대 이하	113(36.5)	2.24	.53	
	40-50대 이상	197(63.5)	2.76	.50	
		t	-3.327*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35(11.3)	2.17	.51	
	100-200만원 미만	141(45.5)	2.26	.52	
	200-300만원 이상	134(43.2)	2.26	.50	
		F	.474		
학력	고졸 이하	131(42.3)	2.25	.53	
	2년제 대학 이하	67(21.6)	2.26	.51	
	4년제 대학 이하	102(32.9)	2.23	.49	
	대학원 이상	10(3.2)	2.20	.63	
		F	.101		
직업	유	177(57.1)	2.22	.51	
	무	133(42.9)	2.28	.53	
		t	-1.008		
주거형태	단독주택	124(40.0)	2.25	.50	a
	연립주택	22(7.1)	2.23	.52	a
	아파트	164(52.9)	2.81	.54	b
		F	3.849*		
가족 수	4인 이하	204(65.8)	2.24	.53	
	5인 이상	106(34.2)	2.78	.47	
		t	-3.771*		

* p< .05

일의 차이분석 결과는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이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분석 결과는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분석 결과는 충동형, 과시형 및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충동형의 경우 대학원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4년제 대학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시형에서도 대학원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4년제 대학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편, 환경보호형에서는 4년제 대학 이하에서 가장 낮은 반면 대학원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 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분석 결과는 과시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인 이하에서 보다 5인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 직업과 주거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 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검증 (N=310)

변인	구분	빈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Scheffe-test
알뜰형	하	64(20.7)	2.12	.51	a
	중	152(49.0)	2.25	.50	ab
	상	94(30.3)	2.34	.51	b
	F		3.366*		
충동형	하	72(23.2)	2.34	.50	
	중	173(55.8)	2.25	.53	
	상	65(21.0)	2.23	.52	
	F		1.625		
과시형	하	75(24.2)	2.29	.53	
	중	194(62.6)	2.25	.51	
	상	41(13.2)	2.17	.49	
	F		1.747		
환경보호형	하	74(23.9)	2.21	.50	a
	중	189(61.0)	2.43	.58	ab
	상	47(15.2)	2.86	.56	b
	F		5.310***		

* p< .05 *** p< .001.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표 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의 사후검증결과 각 집단을 a집단, b집단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결과는 월 평균소득, 학력, 직업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 주거형태 및 가족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30대 이하 보다 40대 이상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형태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보다는 아파트인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 수에서는 4인 이하

보다 5인 이상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4.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 비교

라이프스타일의 영역별로 알뜰형, 충동형, 과시형 및 환경보호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의 사후검증 결과 각 집단을 a집단, ab집단, b집단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알뜰형과 환경보호형은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알뜰형과 환경보호형 모두에서 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동형과 과시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인구 통계 학적 변인	1. 연령	1.00									
	2. 월평균소득	.36***	1.00								
	3. 학력	-.16**	.13*	1.00							
	4. 직업	-.13*	.06	.05	1.00						
	5. 주거형태	-.06	.24***	.18***	.07	1.00					
	6. 가족수	.11*	-.05	-.08	-.14**	-.27***	1.00				
라이프 스타일	7. 알뜰형	.08	.06	.03	-.08	-.01	-.05	1.00			
	8. 중동형	-.09	.01	.05	-.03	-.01	.07	-.12*	1.00		
	9. 과시형	-.04	.09	.13*	-.03	-.02	.06	-.11*	.44***	1.00	
	10. 환경보호형	.12*	.09	-.01	-.01	.03	-.01	.27***	-.04	-.02	1.00
11.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	.12*	.06	.01	.09	.22***	.18***	.21***	.05	.02	.18***	1.00

* p< .05 ** p< .01 *** p< .001

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요인

5.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과 방향성을 검증하고,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순위척도의 자료는 스피어만(Spearman)의 순위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연령(r=0.12)은 유의확률값이 0.05이하로 나타났고, 주거형태(r=0.22)는 유의확률값이 .001이하로 나타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생활유형에서는 알뜰형(r=0.18)과 환경보호형(r=0.18)에서 유의확률값이 .001이하로 나타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5.2.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 영향 요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8>. 중회귀분석의 회귀방정식은

$$y=Bx+B'x'+B''x''+A$$

와 같이 여러 독립변인이 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통계방식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연령, 주거형태, 가족수가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었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알뜰형 라이프스타일과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표 8.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310)

독립변인	b	β	T
알뜰형 라이프스타일	7.237E-02	.099	2.687**
충동형 라이프스타일	-2.8E-02	-.036	-.581
과시형 라이프스타일	-4.2E-03	-.005	-.078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	7.7E-03	.124	2.575**
연령	.131	.163	2.780**
월평균소득	8.7E-03	.011	.193
주거형태	.124	.177	2.939**
가족수	.101	.153	2.639**
회귀상수	1.530***		
R ²	.188		
F-value	2.599**		
** p< .01 *** p< .001			
Durbin Waston	2.017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6. 결 론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실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0.0 PC Statistic Program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하위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의 영역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알뜰형은 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형과 과시형은 학력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고, 환경보호형은 연령, 월평균 소득,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알뜰형과 환경보호형에 주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거주의 소비자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알뜰형과 환경보호형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연령, 주거형태, 가족수, 알뜰형 라이프스타일, 환경보호형 라이프스타일로 분석되었다. 결국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물론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라이프스타일에서 알뜰형과 환경보호형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친환경농산물 구매의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동형과 과시형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도 친환경농산물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의 영역별로 파악된 특성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는 건강과 안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류도 요구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 및 축산물과 같은 전반적인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속성별 선호도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척도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는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생활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때, 이를 그 범주 안에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관행농산물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충동형과 과시형의 라이프스타일 계층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략계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웰빙추구형과 같은 새로운 소비생활유형에 대한 관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주, 박명희. 1990.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84-99.
- 강이주, 오명렬. 2000. “신세대생활양식의 동태적 변화-최근 3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3(2): 1-12.
- 김민정, 박진선. 1997. “생활양식과 구매유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21.
- 김정은, 정순희. 2003. “생활양식 유형화와 유형별 예술상품소비행태분석.” 『한국가족 자원경영학회지』 7(1): 1-22.
- 김훈, 권순일. 1999. “인터넷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8(2): 353-371.
-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19-34.
- . 1998. “체계적 분석의 틀을 이용한 한국 녹색소비자들의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2(3): 281-296.

박진선. 1995. “생활양식과 구매유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상희. 1993. “가계소비 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서정희. 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 93-101.

정순희, 김현정. 2002. “생활양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2): 107-128.

조은미, 최남숙. 2003. “생활양식이 포장폐기물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자원경영학회지』 7(1): 119-133.

조형오.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2): 223-242.

채서일. 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 46-63.

채정숙. 1999. “생활양식의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생활양식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0(4): 79-98.

허무열, 권기대, 최이규. 2005.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의 브랜드선호유형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2(2): 227-248.

현소은, 성예원. 1998. “취업 여부에 따른 주부 소비자 행동 비교 연구: 생활양식과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차이분석.” 『소비자학연구』 9(3): 41-57.

황은애. 1998. “도시주부의 생활양식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와 패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lummer, J. T. 1974. “The Theory &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 33-37.

■ 원고 접수일 : 2005년 7월 29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8월 9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11월 18일